

통찰력



재산 이야기: Evelyn Sheehan 변호사, 중남미의 고객 개인 자산가에게 뺏는 미 법무부의 “원거리 권한”을 논하다

2020 10 27

전 세계 각지의 고객 개인 자산가가 직면한 국제 소송 시나리오들을 다룬 코브레 & 김과 *Family Wealth Report* 합작 “재산 이야기” 시리즈의 제3화에서는 코브레 & 김의 Evelyn Sheehan 변호사가 Robin Rathmell 변호사와 함께 확장되는 미국 법무부의 권한의 영향력 안에 중남미를 비롯한 전 세계 고객들이 점점 들어가고 있는 현상을 논했습니다.

자산 몰수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전직 미 법무부 변호사였던 Evelyn Sheehan 변호사는 중남미, 특히 브라질이 미 법무부의 계속되는 해외부패방지법(FCPA) 수사와 몰수 확장의 “터발”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. 미국과는 최소한의 연관 밖에 없는 미국 외의 당사자가 이러한 수사에 휘말려 해외부패방지법과 자금세탁 기소를 당하는 일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. 특히 자금세탁은 미 법무부가 관할을 확보하기가 매우 용이하며, 이는 미 법무부에게 광범위한 몰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강력한 조치들의 포문을 개방합니다.

이와 관련하여 미 법무부는 국제 부패 근절 노력의 일환으로 몰수를 점점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. 특히 민사적 몰수는 기소가 되지 않은 사람에게서도 미국과 미국 외 자산을 압수할 수 있는 강력한 수단입니다. 다행히 미국 의회는 제3자를 비롯한 관련자의 자산 몰수에 적법절차 준수를 법제화하였습니다. 이는 고객이 미 법무부에 대한 증거개시 절차를 시작하여 고객 혐의와 관련된 정보를 파악하거나 심지어는 법무부가 몰수 조치를 중단하도록 압박 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.

전체 회차는 여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